

“30만 자족도시·전남 제1의 경제도시 초석 다지겠다”

무소속으로 재선 성공 정현복 광양시장 민선 7기 구상

중앙공원 20만평에 세계적 어린이 테마파크
전기차 공장 조성...생애주기별 맞춤복지 확대
이순신대교에 해변공원...섬진강까지 유람선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정현복(68) 광양시장은 “광양시민의 오랜 꿈인 30만 자족도시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정 시장은 “지난 4년을 되짚어보면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고 160개 기업의 투자 유치와 1만2000여개 일자리 창출, 3개 지구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남도립미술관과 예술고등학교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는 민선 7기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정 시장은 민선 7기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술술 풀어 놓았다.

정 시장은 “5대 핵심사업인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과 중마·금호 이순신대교 해변공원 조성, 미래 4차 산업 집중 육성, 섬진강 뱃길 복원 및 마리나항 개발, 광양읍 목성·인서지구 개발을 공격적인 행정과 실사구시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특히 중앙근린공원에 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어린이 테마파크와 관련해 “시민들이 언제나 나들이 할 수 있도록 무료와 유료시설로 절반씩 조성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아주 흥미롭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만들어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순신대교 해변공원을 조성해서 파리의 세느강 주변처럼 관광 명소를 만들고 섬진강 뱃길 복원으로 마덕포구에는 마리

나항을 유지해서 이순신대교에서 섬진강까지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정 시장은 “광양이 제1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철강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리 시는 철강과 항만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4차 산업 혁명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전기자동차 공장과 부품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드론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부터 추진해온 ‘아이 행복’과 ‘청년 희망’ ‘여성 안전’ ‘어르신 건강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정 시장은 시가 해내야 할 복지 청사진도 제시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출범시켰으며 전남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와 ‘여성 친화도시’를 동시에 지정 받았다.

정 시장은 “아이와 청년,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민선 7기 5대 시책

- ▲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 ▲ 중마·금호 이순신대교 해변공원 조성
- ▲ 미래 4차 산업 집중 육성
- ▲ 섬진강 뱃길 복원 및 마리나항 개발
- ▲ 광양읍 목성·인서지구 개발

교까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초등학교 입학생 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에게는 청년수당지급과 구직 청년 교통카드발급, 무상 건강검진, 청년 행복주택 건립 등을 시행하고 여성을 위해서는 다둥이 출산맘 행복 쿠폰 지급과 산모 100원 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르신들을 위해 일자리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저소득 치매환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 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시민의 이익이 최우선 되는 실사구시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다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시 ‘납세자 보호관제’ 운영

광양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관리현장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업무를 맡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제도 운영을 위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특히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시민은 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 법무팀을 찾으면 된다.

이병환 광양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박차

금융지원·경영혁신·지역화폐 확대 사업 집중투자

광양시가 최저임금 인상과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제로화와 금융지원 정책 등 소상공인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경영혁신,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사업 등에 집중투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최대 3000만원 용자와 연 3%로 2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260개 업체를 대상으로 72억원 용자추천과 이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사인특례보증’을 통해 내년부터 최대 3000만원 용자와 연 1%대의 이자를 지원하는 금융복지사업에도 나선다.

아울러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지원과 선사인특례보증을 연계해 지원받아도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0%로 낮춰나갈 계획이

다.

시는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가계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광양에서 벌고 소비하는 경제 수단으로 2008년부터 발행된 광양사랑상품권카드는 지금까지 180억원이 팔렸으며 마트와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잔액확인과 마그네틱카드 사용 불편 등으로 구매자가 줄고 있어 대체화폐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최근 정부에서 2020년 도입키로 한 일명 ‘제로페이’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목표로 ‘광양페이’ 추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 선정 등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으로 해소와 성공적인 마케팅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아이 안심하고 키우기 “광양을 배운다”

통학버스 간헐 사고 예방 비상벨·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전국 벤치마킹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시책들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간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썩썩이 멍동-가(사진)’ 사업과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실내 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썩썩이 멍동-가 사업’은 지난 1월 광양시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전국민안전공동체, (주)KT 등 4개 기관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비상벨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6월 말까지 171대 어린이 통학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했다.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에는 간헐 사고 발생시 비상벨을 누르면 구조요청 신호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운전자 등에게 휴대폰과 기관 PC로 알려주는



IoT차량 비상관제서비스가 갖춰져 있다.

특히 문제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간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각각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해 광양시에서 추진한 ‘썩썩이 멍동-가’ 사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또,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어린이집에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과 사업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이러한 발 빠른 보육정책은 타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진보육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신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공모를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국 최고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Jeongeup-si Council